

오늘 새벽이라고 해야하나
여친한테 정이 확 떨어졌다

나는 술집 나와서 술이 깨고 있었고
여친은 너무 힘들어했다

내 집 가는 버스를 몇 대 보내고 난
후에도 여친은 혼자 집을 못 갈
것같길래 호텔을 잡았다

십만원 돈이었는데 지금 당장
카드값내야하는 돈도 부족한
상황인지라 부담이었다

2022년 07월 08일 · 12:30 오후 · 에
[Twitter for Android](#) 앱을 통해

그런데 어쩔 수 없지
사람 목숨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

여친이 씻고 나오자마자 키스를 했다
술에 진탕 취했을 때 나한테 기대있길래
머리카락에 입 맞추려는 나도 꺼렸던 사람이
그리고 내가 해주길 원했다

나는 섹스하기 싫었다
너무 취해서 힘들었고 이 사람이 나랑 정말
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

**+) 항상 씻고 나오면 머리를 말리던 사람인데
그 날은 머리도 다 말리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
키스를 하고 애무를 했다**

확신도 없었다
그런데 했다, 안 하면 사이가 더 틀어질
것같아서

숙취가 너무 심해서 토하러 일어났다
토하고 양치하고 정신 좀 깨려고 씻었다
그때 여친은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
그때까지도 괜찮냐는 말 한 마디가 없었다

씻고 나와서 숙취해소제를 사려고 옷을 겨우
갈아입었다

기립성 저혈압때문에 두어번 정도 주저 앉고
겨우 신발장에 가 신을 신었다.
그제서야 여친은 어디 가냐며, 같이 갈까라며
물어왔다.

이미 정이 떨어져버린 나는 거부했고 혼자
약과 음료수를 사왔다.

너무 힘들어서 약 먹고 손 닦고 바로 누웠다.
그때도 여친은 계속 친구와 통화 중이었다.

약 먹고 누워도 속이 울렁 거렸다.
여친은 계속 전화를 했다. 나중에 그는
그럴만한 전화라서 계속 했던 거라고 했다.

"내가 아프든 말든 지금 전화를 하는 건
아니지 않을까?"

이 말을 들은 여친은 친구와 하던 전화를 끊고
바로 왔었다.

와중에 나는 또 토를 하고 왔던 것 같다.

여친은 화가 나있었다.

나도 여친한테 실망해있었다.

나는 여친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게 그렇게
큰 일이냐고 따졌고

여친은 나한테 전화를 끊어달라고 좀 더 좋게
말할 순 없었냐고 따졌다.

"우리 서로 너무 큰 걸 바라나보다."
여친은 저 말을 하고 집에 가겠다며 짐을 쌌다.

집어던지듯 짐을 싸는 모습에 또 충격을
먹었고 공포스러웠다.

그런데 잡았다. 지금 보내면 영 끝일 거같아서.

우리는 일주일 넘게 싸워 어색한 상태였었고
그때 여친은 내가 여친의 입장을 한 단계 더
생각해줬으면 한다고 했고 나도 그러겠다
약속했었다.

그래서 먼저 사과했다. 말을 꼬아서 얘기해서
미안하다고.

그 말을 듣고 여친은 그냥 자자고 했다.

그래서 누웠다.

그 후로도 몇 번을 토 하러 화장실을 왔다
갔다했고 여친은 그냥 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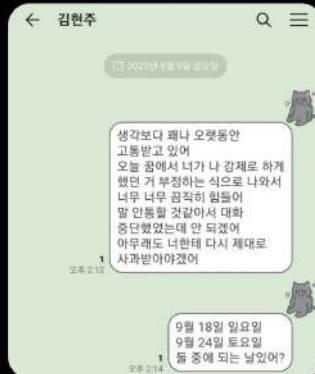
이 사람은 내가 당신이 필요할 때 없는 사람인
것 같다. 벌써 두 번째다. 그가 필요했을 때
그가 없었던 적이.

**이 일만 있던 게 아니라
가스라이팅도 했던 전여친...
참 한남같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**

< 010-8997-6947 >

2022년 9월 9일 금요일

읽음 카톡 안 봐서 문자 보내



읽음 오후 2:00

읽음 오후 9:14 차단한 거 아님 답장해

2022년 9월 12일 월요일

읽음 오전 5:00 문자나 카톡 좀 확인할래?

2022년 9월 13일 화요일

읽음 오후 1:12

일부러 안 보는 거지? 난 너한테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진심으로 사과 한 번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. 너는 나한테 사람으로서 예의를 작게도 지키지 않네. 넌 결국 나한테 고소장을 받게 될 거 같아. 진심어린 사과 그거 한 번이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넌 네가 그 기회를 놓친 거야.

2022년 9월 14일 수요일

읽음 오전 1:06

나 복학하고 학교 다니기에도 바빠 너 신경쓰기 무척 힘들니까 읽었으면 답장을 하던지 아님 답장 할 것 없다고라도 말을 해

연락이 늦었네.. 생각해야할 것도 고민해야할 것도 많았고.. 우리 관계를 정말 면밀하게 되돌아봤어..

연주야. 우리 헤어졌어. 그리고 그건 니 결단이었고. 인정해. 내게 부족함이 많았어.. 진심으로 사과할게. 헤어질 때에도 감정에만 치우쳐서 치졸하게 굴었고.. 미안해.. 사귄 때에도, 좋다, 보고싶다 감정표현에도 충실해야 했고 또 너가 걱정하지 않도록 연락도 신경써서 해야 했고, 부족한 거 알아.. 그래서 니가 헤어지자고 할 때, 화도 나고 서운하고 그랬지만 받아들였어.

너가 어떠한 문제이건



< 010-8997-6947

:

너가 어떠한 문제이건
만나자고 하는 건 따를 수
없어. 연주야 감정선이
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,
끝난 사이인데 우리가 만날
이유가 뭐가 있겠어..

여기다 대고 넌, 내 꿈이
공무원이고 내가 계획하고
준비해나가는 게 무엇인지
아는 니가 만나자는 걸
거절하니 대뜸 수사받으라..
고소하겠다고 말하더라..
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
당혹스러워서 내 사정을
설명했더니 나에게 예의없다
운운하고, 그 날 일을 강제로
하게 했던 거라고 하고..
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고..

니가 하는 이런 행동, 엄연히
가스라이팅은 아닐까? 너가
만일 그날 일 진짜 그렇게
생각한다면, 고소해.. 고소하면
될 일이야.. 나에게 굳이
메시지를 보내서 수사받으라,
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, 이것
또한 범죄가 되더라.. 넌
그러겠지.. 사과를 할 기회를
주고 싶었다.. 용서해주려고
했다..??? 근데 이런 것들이 날
어떻게든 몰아세우고 내 위에
군림해보겠다는 심산인지,
아니면 정말 너의 진심인
것인지 되묻고 싶다.

그 전이야 니가 그 날일을
말하면서 상처가 되었다,
힘들었다 얘기하면 내가 너랑
사귀는 사이이고, 가장 가까운
사람이고 나로 인해 그랬다
하니 빌기도 하고 달래도
주었지만, 지금은 달라. 그날
정말 너가 힘들고 기분이
상했던 게 니가 말하는 우리
스킨십 때문이야, 아니면
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친구랑
통화하고 또 니가 뭐라해서
호텔에서 먼저 집에 가려했기
때문이야.. 곰곰이 생각해봐
그 이후 너와 내가 주고받았던
말들, 대화들, 일상들...



010-8997-6947



넌, 나랑 사이가 좋을 때는
한없이 좋다, 감정이 상하거나
화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날
몰아세워왔어.. 그리고 그 날
일 이후로는, 그날 일이 너의
무기가 되었고...

그렇지만 그날 일 솔직히
터놓고 얘기해볼까? 우리 며칠
동안 냉전이다가 그 날 만나서
풀고 술 마시다가 비도 와서
너가 날 호텔로 데려갔잖아.
내가 너한테 스킨십을
해달라고 부탁했는데
피곤하고 힘들지만 해줬다는
거잖아. 내가 지금도 생생한
장면은, 너가 내 다리
사이에 앉아서 너가 나한테
손가락으로 애무를 하며
삼입하고 있는 순간이야...

그날 일을 두고 강제성이
있었다라는 거잖아.. 그런데
내가 널 강제로 만졌니?
너한테 애무해달라 부탁한
거고, 너가 해준 거잖아. 넌
끝까지 내가 느낄 때까지 해준
거고... 너 나보다 힘세고,
너 나보다 너의 의사표현에
확실한 사람이야.. 내 부탁이나
제안이 설령 마음에 들지
않았다면 하지 않았겠지..
너 그날 피곤했을 수도
있고.. 그런데도 너가 그 땐
날 좋아했기 때문에 해준
것이야. 돌이켜 생각해봐. 내가
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
협박을 했니, 아니면 완력을
행사했니...

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, 너



< 010-8997-6947

⋮

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, 너
나 그렇게 해주고 우리 둘이
그날 같이 잤어..아침까지..
중간에 내가 새벽에 깨서
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,
너가 자다가 일어나서 숙취가
있으면서 약 사러 나간다고
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잖아.
물론 그 때 나야 생각이 짧아서
너 평상시에도 약을 먹으면
금방 괜찮아지길래 나는
친구랑 계속 통화를 했고, 그게
잘못이었던 거야...

넌 갑자기 나한테 아픈 사람
걱정도 안 해주고 둘이 있는데
왜 계속 통화하냐고 했잖아.
내가 통화 계속해야 한다고
가겠다고 하니 가지말라
붙잡고 같이 있자고 했잖아.
체크아웃 시간까지 자다가
체크아웃하고 근처 카페에서
얘기하고 잘 지내기로 했잖아.
얼마 뒤에 둘이 제주도 여행도
잘 다녀왔었고, 100일이
되면 강원도로 여행 가기로
얘기하면서 호텔 예약까지
했었잖아.

오전 1:38

넌, 니가 말하는 성폭행을 가한
가해자한테 질투나 서운함을
느끼고, 관심을 바라고, 집에
가겠다고는 가해자한테 가지
말라 붙잡는거니? 그 가해자랑
같이 자고 여행을 가고..
미래를 계획한 거니? 그리고
그 계획이 틀어지니 다시
성폭행범이 되는 거고?

니가 기분 나쁜 건 피곤하고
하기 싫은데도 나 좋게 하려고
애무까지 해준 사람... 정작
자기 숙취 때문에 아프다는데
다른 친구랑 통화하고 집에
가려했기 때문 아니야? 난
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너가
나한테 줄곧 사과를 요구하고
힘들다고 했을 때마다 너의
말을 들어주고 너의 마음을
풀어주려고 노력했어..

그런데 그 날일에 대해서
너 역시도, '해줬다'라고
표현하고 있잖아. 넌 해준거야

v

< 010-8997-6947



표현하고 있잖아. 넌 해준거야
날... 그리고 넌 날 술마셔서
인사불성이 된 상태라고도
했잖아. 인사불성이 된 내가,
너에게 강제로 무엇을 할 수
있겠어? 난 그냥 해달라고
느끼고 싶다고 했을 뿐이고,
그냥 넌 인사불성이 된 내가
원하니 해줬던 것이고, 그
반대로 나는 널 해주지 못했던
것이고..

넌 내가 새벽에 깨더니 다른
친구랑 통화하느라 널 두고
간다는, 그게 기분 나빴던
거야. 넌 그날 일을 두고,
트위터에 내 생각을 말하던
나를 한남이라고 모욕하고,
나와 있었던 일을 성폭행이라
표현해왔잖아 나 착실히
수사 받을 거야. 나 역시도
무고죄를 생각해볼 것이고,
니가 트위터에 게재한 글이
나에게 어떤 상처와 피해를
주고 있는지도 정말 면밀히
고민해볼 거야.

이제 그만 메시지로, 나를
괴롭히지 말았으면 해.

오전 1:39

